

대한법의학회지 40년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한법의학회 40주년에 즈음하여

나주영¹ · 김형건¹ · 김형석²
이 호³

¹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²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³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A Historical Review of the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In Commemoration of the 4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Korean Society for Legal Medicine

Joo-Young Na¹, Hyeong-Geon Kim¹, Hyung-Seok Kim², Ho Lee³

¹Forensic Medicine Division, National Forensic Service Gwangju Institute, Jangseong, Korea,

²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³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Jeonju, Korea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Medicine (KSLM) was founded in 1976 and launched its official journal, the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KJLM), in 1977. The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s forensic medicine and science, the demand for which has increased in Korean society over the years. A historical review is important and has a significant value in the advancement of forensic medicine and science in Korea.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s and analyzes all papers published in KJLM for 39 years, from Volume 1, Issue No. 1 in 1977 to Volume 39, Issue No. 4 in 2015. There are 891 published papers, which are categorized into 318 review articles, 339 original articles, and 234 case reports. Of the total 891 papers, 377 (42.3%) are related to forensic pathology, whereas 111 (12.5%) concern forensic genetics. The major submitting institutes are forensic medicine departments of universities and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KJLM's history can be divided into two phases. The first phase is from the 1970s to the 1990s, and the second, from the 2000s to the present. Many review articles were published in the first phase; approximately 10% of these articles concern clinical forensic medicine and law. Articles on forensic genetics, identification, and entomology also started to be published in the first phase. In the next phase, many case reports from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were published, and the number of articles on forensic pathology and forensic genetics multipl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KSLM and KJLM with direction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is part of the organization's 40th anniversary celebration, and in commemoration of its contribution to advancing human rights and social stability in Korea.

Key Words: Review; Korea; Journal article; Forensic medicine

Received: November 1, 2016
Revised: November 10, 2016
Accepted: November 15, 2016

Correspondence to

Ho Lee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567 Baekje-daero, Deokjin-
gu, Jeonju 54896, Korea
Tel: +82-63-270-3064
Fax: +82-63-270-4598
E-mail: foremed@jbnu.ac.kr

서 론

대한법의학회는 1976년에 창립되었고, 이에 맞추어 대한법의학회지 역시 1977년에 제1권이 발행되어 2016년에 제40권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쉽지 않은 대한민국의 법의학 환경 속에서 대한법의학회와 대한법의학회지는 법의학의 사회적, 학문적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대한민국에서 법의학의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 대한법의학회는 1971년 제1회 법의학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977년 제1회 대한법의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 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편집위원회 역시 1977년에 대한법의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조직되어 2016년 현재 제40권의 대한법의학회지를 출판하고 있다. 대한법의학회 40주년을 맞이하며, 대한법의학회지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발표된 저서들을 분석하여 향후 대한법의학회지와 법의학의 발전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977년에 발행된 대한법의학회지 제1권에서부터 2015년에 발간된 대한법의학회지 제39권에 수록된 총 89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지난 40년 간의 대한법의학회지의 개괄적인 역사에 대해 요약하였고,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각 논문의 종류는 종설, 원저, 증례보고로 구분하였다. 논문의 각 분야는 법의병리학, 임상법의학, 법학, 법의통계학, 법의독성학, 법정신의학, 법치의학, 법의유전학, 개인식별, 법곤충학 등으로 구분하였다. 저자의 소속은 책임저자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소속의 종류는 대한법의학회의 특성상 대학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기타 기관으로 구분하였다. 기타 기관에는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대한경찰공의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검찰청, 경찰청 등이 포함되었다.

결 과

1. 대한법의학회지 역사

대한법의학회지는 1977년에 학회 창립과 함께 제1권이 발간되었고[1], 총 20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이후 1985년 제9권까지는 연 1회 발간되었고, 1986년 제10권부터는 연 2회 발간되었으며, 연 2회 발간되는 경우 제1호에서는 원저 및 증례 중심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제2호에는 종설 중심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2013년 제37권부터는 연 4회 발간되고 있다. 권당 수록된 논문의 편수는 제6권 13편이 가장 적었고, 제31권 34편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22.8편이었다. 1977년 제1권 제1호

부터 2015년 제39권 제4호까지 총 89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대한법의학회지의 표지는 2007년 제31권 제2호부터 현재 대한법의학회지의 표지로 개편되었다. 대한법의학회지는 1991년 제15권부터 www.koreamed.or.kr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2012년부터 DOI 부여 및 CrossRef에 참여하였으며, 2013년 제38권 제3호부터 Open access 논문집임을 공표하였다. 또한, 대한법의학회지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16년 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되었고, 2012년 제36권부터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논문의 투고 및 심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 논문의 종류

전체 891편의 논문 중 종설은 318편, 원저는 339편, 증례보고는 234편이었다. 종설의 경우 1999년 제23권까지는 권당 평균 12.4편이 게재되었으나, 2000년 제24권에는 1편이 게재되었고, 이후 2015년 제39권까지는 권당 평균 2.1편이 게재되었다. 종설은 1980년대 전체 게재된 논문의 72.6%를 차지했던 것을 최고로 1990년대까지는 약 50%를 차지하였으나,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종설의 대부분은 법의병리학, 임상법의학, 법학 분야에 관한 것이었다. 원저의 경우 1994년 제18권까지는 권당 평균 5.1편이 게재되었고, 이후부터 2015년 제39권까지는 권당 평균 11.8편이 게재되었다. 원저는 창간 이후로 게재된 전체 논문의 약 22%-47.1%를 차지하였다. 원저는 19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당부분 법의유전학 분야의 연구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증례보고의 경우 1977년 제1권과 1978년 제2권에는 게재되지 않았고, 1979년 제3권에 1편이 게재되었으며[2], 이후 1996년 제20권에 7편이 게재되는 등 1998년 제22권까지는 권당 평균 1.4편이 게재되었으나, 1999년 제23권부터 2015년 39권까지는 권당 평균 12편이 게재되었다. 증례보고는 1970년대 1.8%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에 44.7%로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대에는 전체 게재된 논문의 5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상당부분 2000년대 이후 법의병리학 분야에서 증례보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Table 1).

3. 논문의 분야

게재된 논문의 분야에서는 법의병리학 분야가 377편으로 가장 많았고, 법의유전학 분야가 111편이었으며, 다음으로 법학이 92편, 임상법의학 분야가 83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법의병리학 분야와 법의유전학 분야가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였으나, 다음으로는 법의통계학,

법학, 기타, 법정신의학이 다음 순서로 많았다(Table 2).

법의병리학 분야는 1990년대까지는 전체 논문의 30%~40% 정도였으나,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각각 47.5%, 63.4%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1980년대에 전체 논문의 약

25% 정도를 차지했던 임상법의학은 2000년대부터는 게재되지 않았으며, 법학의 경우 1980년대에는 전체 게재된 논문의 약 22%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0년도에는 8편, 2010년도에는 1편이 게재되는 정도에 그쳤다. 법의통계

Table 1.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according to their type, field of study, and year of publication

Variable	1977–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5	Total
Review article	36	130	119	21	12	318
Forensic pathology	8	35	38	5	2	88
Clinical forensic medicine	11	44	22	0	0	77
Law	7	39	35	4	0	85
Statistics	2	0	0	0	1	3
Toxicology	4	4	1	0	0	9
Psychology	0	4	5	0	1	10
Forensic odontology	0	2	1	0	0	3
Forensic genetics	0	0	5	4	4	13
Identification	0	0	1	2	0	3
Entomology	0	0	1	0	1	2
Others	4	2	10	6	3	25
Original article	20	40	91	120	68	339
Forensic pathology	8	29	21	30	13	101
Clinical forensic medicine	1	1	2	0	0	4
Law	0	0	2	3	1	6
Statistics	6	9	11	19	15	60
Toxicology	3	0	2	5	5	15
Psychology	2	0	6	7	11	26
Forensic odontology	0	1	3	1	2	7
Forensic genetics	0	0	41	39	10	90
Identification	0	0	1	3	0	4
Entomology	0	0	0	6	1	7
Others	0	0	2	7	10	19
Case report	1	9	30	114	80	234
Forensic pathology	1	8	21	88	70	188
Clinical forensic medicine	0	0	2	0	0	2
Law	0	0	0	1	0	1
Statistics	0	0	1	0	0	1
Toxicology	0	0	1	11	3	15
Psychology	0	0	0	0	0	0
Forensic odontology	0	1	0	2	1	4
Forensic genetics	0	0	0	3	5	8
Identification	0	0	4	4	0	8
Entomology	0	0	0	0	1	1
Others	0	0	1	5	0	6
Total	57	179	240	255	160	891

Others include anthropology, radiology, engineering,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among others.

학, 법의독성학, 법정신의학 분야의 경우 증감이 있으나, 창간 시기부터 꾸준히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되었고, 법치의학 분야의 경우 1981년 제5권에 교상에 대한 증례보고를 시작으로 대한법의학회지에 꾸준히 게재되었다[3]. 법의유전학 분야의 경우 1990년 제14권에 처음 게재된 이후로 1990년대에는 46편이 게재되어 1990년대에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 중 19.2%를 차지하였으며, 이후로는 법의병리학 다음으로 대한법의학회지에 많이 게재되고 있는 분야가 되었다[4]. 개인식별 분야는 1991년 제15권에 KAL기 추락 사건에서 시행된 대량재해의 개인식별 보고를 통해 게재가 시작되었고[5], 법곤충학 분야의 경우 1994년 제18권 변사체의 곤충상에 대한 종설을 시작으로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되었다[6]. 기타 분야는 검시제도, 법의학 교육, 법공학 등 기타 법과학 분야가 포함되었으며, 게재된 논문은 1980년도에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게재된 전체 논문 중 약 13%를 차지하였다(Table 2).

4. 투고 기관

대학교에서 투고된 논문은 1970년대에는 전체 게재된 논문 중 82.5%를 차지하였고, 2000년대 이후로는 약 50%를 차지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투고된 논문의 경우 1970년대에는 전체 게재된 논문의 8.8%에 지나지 않았으나 점차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 49%로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43.1%를 차지하였다. 기타 기관에서 투고된 논문은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약 9%~14%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각각 7편, 13편이 게재되는 것에 그쳤다. 대한법의학회지에 투고한 기타 기관은 국립법무병원,

대한변호사협회,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등이었으며, 1980년대까지는 대한경찰공의협회 및 부산법의감정위원회로부터의 투고가 많았으나, 1990년대부터 이들 기관의 투고는 없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및 검찰청의 투고 역시 1990년대를 마지막으로 투고되지 않았고, 2000년대 이후로는 주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와 국립법무병원에서 논문이 투고되었다(Table 3).

고 찰

대한법의학회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의학에 대한 학문적 업적을 게재하여 대한민국에서 법의학의 발전 및 사회 안전 등에 기여하고 있다. 1977년 대한법의학회의 창립과 더불어 제1권을 출판한 이후로 2016년에 창간 40주년을 맞이하였고, 1977년 제1권부터 2015년 제39권까지 대한법의학회지에는 89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저자들은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대한법의학회지의 과거를 돌아보고, 향후 대한법의학회지와 법의학의 발전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전체 891편의 논문 중 종설은 318편, 원저는 339편, 증례보고는 234편이었고, 게재된 논문의 분야에서는 법의병리학 분야가 377편, 법의유전학 분야가 111편, 법학이 92편, 임상법의학 분야가 83편이었다. 논문 투고 기관은 대학교가 550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61편, 기타 기관이 80편이었다.

이와 같이 논문의 종류, 논문의 분야, 논문의 투고 기관에 따라 대한법의학회지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인 제1기와 2000년대 이후인 제2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1기에서 논문의 종류는 종설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원저와 증례보고였다. 제2기에서는 증례보

Table 2.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according to their field of study and year of publication

Variable	1977–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5	Total
Forensic pathology	17	72	80	123	85	377
Clinical forensic medicine	12	45	26	0	0	83
Law	7	39	37	8	1	92
Statistics	8	9	12	19	16	64
Toxicology	7	4	4	16	8	39
Psychology	2	4	11	7	12	36
Forensic odontology	0	4	4	3	3	14
Forensic genetics	0	0	46	46	19	111
Identification	0	0	6	9	0	15
Entomology	0	0	1	6	3	10
Others	4	2	13	18	13	50
Total	57	179	240	255	160	891

Others include anthropology, radiology, engineering,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among others.

Table 3. Submitting institutes of the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according to year of publication

Variable	1977-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5	Total
University	47	133	169	123	78	550
Review article	31	101	80	13	12	237
Original article	16	30	72	77	38	233
Case report	0	2	17	33	28	80
National Forensic Service	5	24	38	125	69	261
Review article	2	12	18	8	0	40
Original article	2	8	9	36	17	72
Case report	1	4	11	81	52	149
Other institutes	5	22	33	7	13	80
Review article	3	17	21	0	0	41
Original article	2	2	10	7	13	34
Case report	0	3	2	0	0	5
Total	57	179	240	255	160	891

Other institutes refer to organizations such as the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National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Prosecutor's Offic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mong others.

고가 크게 증가하여 원저와 증례보고가 각각 40% 이상을 차지하였고, 종설이 크게 감소하였다. 논문의 분야에 있어서 제1기에는 임상법의학 분야와 법학 분야가 약 10% 이상으로 게재되었고, 법의유전학, 개인식별 및 법곤충학 분야가 게재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법의유전학의 경우 1990년대에 게재의 증가가 확인하였다. 제2기에 있어서는 임상법의학 분야의 논문이 게재되지 않았고, 법학 분야도 감소하였다. 반면 법의병리학 분야와 법의유전학 분야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게재되는 논문의 전체적인 양도 증가하였다. 논문 투고 기관에 있어서 제1기에는 약 70% 이상이 대학교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기타 기관이 비슷한 양의 논문을 투고하였으나, 제2기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투고한 논문이 현저히 증가하여 대학교에서 투고한 논문과 비슷하게 되었고, 기타 기관에서 투고한 논문은 감소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역사적 분석상 게재되는 논문이 점차 증가하며, 종설의 게재가 감소하고, 원저 및 증례보고가 증가하는 등 대한법의학회지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2000년대 이후로 임상법의학, 법학 분야가 감소하고, 시대에 따라 학문의 분야가 변화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0년대 이후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투고한 논문이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투고되는 논문이 증가하고, 법의병리학 분야와 증례보고가 증가하는 등의 추세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투고되는 다양한 법의병리 분야의 증례보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지난 40여 년간 대한법의학회지는 많은 발전 및 변화가 있었

다. 기존의 역사를 돌이켜 향후 대한법의학회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대한법의학회지의 저변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의병리학 분야에 추가하여 임상법의학, 법학 분야, 검시제도 및 법의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의학으로서 법의학의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논문의 투고 기관을 대학교 법의학 교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대학교 법학과를 비롯한 법 관련 기관, 수사기관, 보험 및 배상 등 다양한 감정 기관, 임상 의학 기관 및 다양한 법과학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법의학의 학문적 특성상 기초 연구 분야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나, 특히 법의병리학 분야에 있어서 기초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대한법의학회지는 게재 논문의 종류에 있어서 종설, 원저, 증례보고,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형식의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논문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대한법의학회지의 국제화를 위해서 국제화에 맞춘 학회지 이름의 수정, 게재 논문의 영문화,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국제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한법의학회지의 발전과 대한법의학회의 발전은 따로 생각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법의학회와 대한법의학회지가 함께 성장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법의학이 보다 자리매김 되어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권이 함께 지켜지는 데에 지속적인 노력

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대한민국에서 법의학은 사회적 학문이자 희귀학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걸어왔으나, 대한법의학회와 대한법의학회지는 지난 40년간 많은 변화와 발전 속에 대한민국의 법의학 명맥을 유지하고, 사회적, 학문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생각된다. 대한법의학회와 대한법의학회지의 4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법의학회지의 발전과 함께 향후 대한법의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1. Kim MD. Historical consideration of legal medicine in Korea. Korean J Leg Med 1977;1:3-7.
2. Lee MK, Woo SD. Autopsy case report. Korean J Leg Med 1979;3:65-6.
3. Kim CY. A case report of individual identification by bite mark. Korean J Leg Med 1981;5:13-7.
4. Choe J. Application of recombinant DNA procedure on diagnosis of hereditary disease and identification of individuals. Korean J Leg Med 1990;14:1-11.
5. Kang SM, Lee WT, Ko YC, et al. Individual identification of KAL accident victims in tripoli airport disaster. Korean J Leg Med 1991;15:13-22.
6. Moon TY. Cadaver entomofauna as forensic indicators. Korean J Leg Med 1994;18:33-9.